

2024 중등임용 합격수기_인천 미술_초수

I. 성적

1차		2차		총성적	
교육학	전공	심층면접	수업실연	실기시험	161.030
17.33/20	51.00/80	47.79/50	19.31/20	25.60/30	

II. 타임라인

2021	00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전공 졸업(교직이수X)	
	동대학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입학	
	한국사 시험 1급 취득	
	1기	조교, 교육봉사
2022	방학	교육학 기본강의 수강(듣기만 함)
	2기	조교, 학술논문, 아동미술학원 아르바이트
	방학	아동미술학원 아르바이트
	3기	조교, 졸업논문, 교생실습, 아동미술학원 아르바이트
2023	방학	전공 기본강의 수강(듣기만 함)
	4기	조교, 졸업논문, 교육학 심화강의 수강
	방학	전공 연간 패키지 시작
2023	5기	자취방에서 본가로 이사, 졸업논문 완료, 임용 준비 병행/올인
	11월	중등임용 1차 시험

대학원 생활동안 학교일정을 제외한 **방학시간을 활용**해 임용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양과 범위를 공부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시험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지거나,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II. 전반적인 마음가짐

처음에는 해낼 수 있는 시험인지 아닌지도 몰랐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점점 목표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상반기 (1~6월)

임용 준비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단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수로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합격수기만**을 찾아보며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느꼈던 해답은 **'단순하게 공부하자'**였습니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았기에 정신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다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교육학, 전공 책 안에서 모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나는 할 수 있다는 무모한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1월에는 순공부 시간을 매일 9시간 채웠고, 암기도 안된 내용을 인출하려고 노력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부족하여 2월부터는 대폭 7시간으로 줄이게 되었고, 3월이 되니 몸살에 마음까지 병들 것 같아서 오래 살았던 자취방을 빼고 본가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공부생활 패턴을 정착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하반기 (7~11월)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모의고사를 통해 인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꼼꼼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다시 보면 기억이 안나는 것들이 많아 절망했던 적도 있습니다(밤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생활 및 공부습관이 초수합격을 위한 것인지 의심했고,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공부 시작 시간, 공부 공간 등).

그리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만 이렇게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읽어보고, 손으로 써보고, 종알종알 대보거나, 검색이나 다른 책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점차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또 가족들과 남자친구에게 저의 마음 상태에 대해 늘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면서** 이 시기를 버텼습니다.

9월 즈음부터는 기본서를 **회독하는 속도를 더 빨리하여 인출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회독하는 속도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빨리 읽을수록 더 집중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월에는 기본서를 안보고 백지에 써내려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11월에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회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IV. 1차 준비

▪ 순공부시간: 평균 7-8시간

순공부시간은 1월에 9시간을 채워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2월부터 바로 7-8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열품타를 사용했었는데 어플에 뜨는 다른 사람들(9-12시간)의 타이머를 보면 기겁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졸음이 쏟아져서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7-8시간 공부하면 체력이 바닥났어요...^^;;)

솔직히 수험생활 동안에는 제가 너무 게으르고 핑계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초집중해서 공부하고, 30분-1시간정도 쉰 뒤 다시 공부하는 방식으로 어찌됐든 합격을 하긴 했으니... 순공부시간은 8시간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순공부시간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만큼은 꼭 채워서 공부하되, 공부할 때 **초집중!!!** 하는 것이 꿀팁이라면 꿀팁이겠습니다...

▪ 공부장소

- 1~2월: 학교 도서관
- 3~4월: 학교 도서관, 자취방
- 5~9월초: 본가
- 9월말~10월초: 스터디카페
- 10월말~11월: 본가

저는 공부장소를 자주 바꿨습니다. 연초에는 학교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도서관을 이용했고, 본가로 이사를 온 후로는 계속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두달 전에는 처음으로 스터디카페 한달권을 사서 가장 집중하여 회독&백지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력 관리에 힘썼어요. 공부가 잘 안될 때는 고민해보시고, 신체리듬에 맞춰 장소를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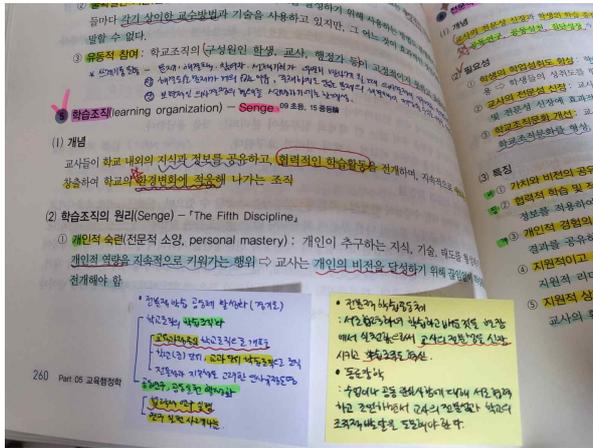
1. 교육학(ㄱㅈㅈ)

▪ 기본서 회독수: 11회

대학원을 다니면서 기본, 심화강의를 한번씩 들었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혼자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혼자 회독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5월부터 11월까지 인강과 라이브강의를 활용해 집에서 수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이브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혼자 집중해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이동시간과 체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교육학은 기본서를 중심으로 모두 이해, 암기, 키워드 인출이 되도록 반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회독을 하다가 점차 기본서가 너무 두껍고, 부가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5월부터는 같은 강사의 요약서 한권을 활용해 회독했습니다. 요약서에서 빠진 내용 중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나 회독할 내용이 있다면 필기, 포스트잇을 추가해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는 논술형 시작 연도부터 프린트하여 수시로 읽어봤습니다.



▪ 1월~8월

월, 화요일에만 공부했습니다. 아래 표는 각 파트마다 공부한 일수입니다. (예를들어 월요일에 교육과정학, 화요일에 교육심리학, 그 다음주 월요일에 교육심리학... 이런 식이요!) 비교적 덜 중요한 ②파트는 2회독에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회독수가 늘어갈수록 조금씩 속도가 붙어서 5월부터는 교육학을 3-4시간 안에 회독한 뒤 전공을 조금 곁들여 공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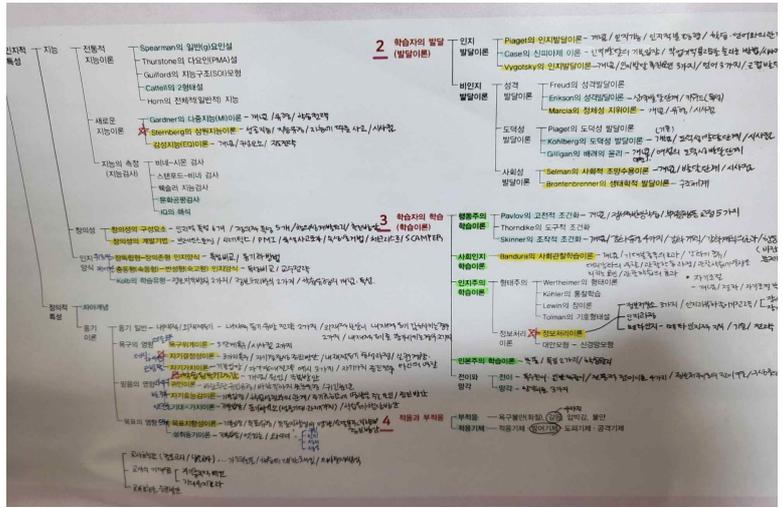
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학 1일 - 교육심리학 2일 - 교육공학 및 방법론 3일 - 교육평가 2일 - 교육행정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도와 상담 1일 - 교육사회학 1일 - 교육철학 1일

추가로 2회독 할때에 타강사의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제가 공부하는 기본서에 없는 부분을 살펴보고 읽었는데, 오히려 같은 내용인데 말이 달라 혼동이 되어 더 이상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좀더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되,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 9월~11월

매일 아침시간에 교육학을 공부하고, 오후시간에 전공을 공부했습니다.(3:7비율) 회독은 기본으로 하되, 인출이 중요할 때라서 수기, 아이패드, 노트북을 모두 활용해봤습니다. 제 경험상 교육학 인출과 모의고사를 반복하다 보면 손등, 손목에 무리가 와서... 노트북 타이핑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인출 방법은 마인드맵

을 활용해 중요 소재목 정도만 적어놓고, 관련 내용을 책을 보지 않고 노트북으로 타이핑한 후, 부족한 내용을 확인하며 암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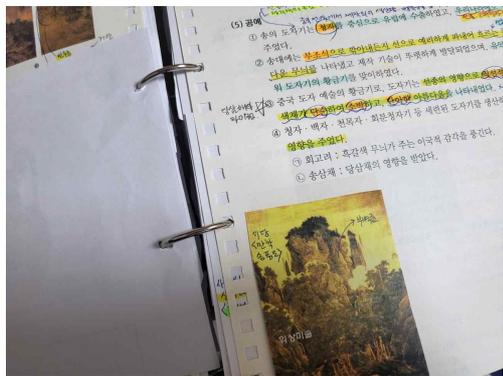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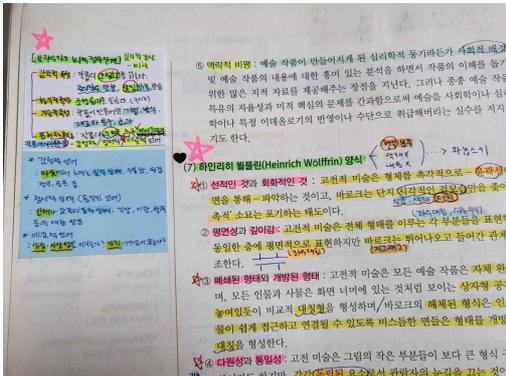
2. 전공미술(ㅇ스)

■ 기본서 회독수: 18회

: 전공은 올인하기 전년도 여름에 기본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일단 완강만 하자는 마음으로 듣고 읽기만 했습니다. 이후 연간패키지 시작 직전에 기본서를 쭉 읽어봤고, 강의가 시작되면서도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기에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은 기본서 **무한 회독- 이해- 암기**가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모의고사 및 다른 서적들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눈에 익히고, 다른 말로 설명된 내용들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개념을 견고히 해 나갔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작품이나 개념들을 조금씩 덧붙여 이해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또한 심화서와 모의고사, 서적, 인터넷 사진 자료 등 기본서의 완벽 이해를 위한 것이라면 추가했습니다. 풀칠을 해서 붙이든, 포스트잇을 활용하든 상관없이 본인이 회독할 때 거슬리지 않게 공부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워낙 두껍다보니 저는 반씩 나눠서 총 4권으로 관리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스프링 제본이었는데, 공부할 내용이 늘어나면서 스프링을 빼고 종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링을 다섯 개 걸어서 종이를 뺐다 꺾다 했습니다.

다음 표는 시기별 회독수와 회독주기입니다. 저의 경험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시기	회독수	회독주기
1-2월	기본서 1회독(수-금)	한달에 1회독
3-4월	기본서 1회독(수-금)	한달에 1회독
5-6월	기본서 3회독(월-금)	3주에 1회독
7-8월	기본서 3회독(월-금)	3주에 1회독
9월	기본서 2회독(월-금)	2주에 1회독
		1) 미교론, 교육과정변천, PCK 2) 서미사1 3) 서미사2 4) 디자인사 5) 디자인 6) 회판조 7) 감상, 동미사 8) 한국미술사 9) 한국조형사 10) 공예, 서예
10-11월	기본서 8회독(월-금)	1주에 1회독
		1) 미교론, 교육과정변천, PCK 2) 서미사 1, 2 3) 감상, 동미사, 한미사 4) 한조사, 공예, 서예 5) 디자인, 회판조
시험직전 3일	기본서 1회독	3일에 1회독

■ 심화서 회독수: 5회(+∞)

: 심화서는 5회정도를 기본서 회독 진도에 맞춰 틈틈이 회독하다가,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을 추려서 포스트잇에 정리하여 기본서에 붙였습니다. 때문에 심화서를 따로 볼 필요 없이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함께 숙지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고사 회독수: 2회(+∞)

: 모의고사는 시험에서 실수한 내용, 개념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은 내용, 처음보는 내용을 추려내기 위해 2회를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제외하고, 어려운 문제들만 오려서 기본서에 추가해 회독했습니다. 기본서를 읽으면서 다 이해 및 암기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안풀리는 경우가 있기에 모의고사 회독을 통해 공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3. 미술과 교육과정

저는 1,2월에는 기본서 읽는 데에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교육과정은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015에서 2022 넘어가는 시기라서 2015를 중점적으로 암기했습니다. 외우면 까먹고 하루 안보면 잊어버리는게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정말 인출이 안되어서 미칠 것 같을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교육과정은 그냥 무작정 외우는게 답입니다..... 암기-인출을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8월까지지는 월, 화에만 암기했고 9, 10월에는 매일 파트별로 암기, 인출했습니다.



저는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암기했고, 인출할 때에는 한글 파일로 빈 표에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며 못외운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더 주의하여 암기했습니다. 클리어파일에 넣어서 종이가 상하지 않게 보려고 했고, 따로 프린트를 한 부 더해서 저의 방 벽에 붙여두고 수시로 봤습니다.

4. 휴식

일요일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공부에는 아예 손도 안대고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하루종일 놀고 술도 마셨습니다. 월~토를 정말 열심히 달리면서 일요일을 기다렸어요. 수험생활의 유일한 일탈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임고생 시절의 일요일이 너무 달콤하고 소중한게 기억됩니다. 선생님들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셔서 수험생활에 활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V. 2차 준비

2차는 정말이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준비기간이 짧기에 시간을 더더더 쪼개서 써야 해요. 특히 실기로 인해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건강관리(밥 잘 챙겨먹고 잘 자기)는 필수인데다가, 수업실연과 심층면접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저는 1시부터 10시까지 실기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면접과 실연은 9시부터 12시에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면접 이틀, 실연 이틀로요!

1차 결과가 나기 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저는 1차 발표 전까지는 이전 스테디원들과 함께 2차를 준비하다가, 결과 발표 후 한마음교사카페에서 새롭게 스테디를 구하게 됐습니다. 초수라서 스테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발표 나자마자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는 자신감**이 정말 필요합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해보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실기가 끝난 다음날 코로나 확진을 받아 3일을 앓아누웠습니다. 일주일을 미친 듯이 달려서 면접, 실연을 준비해야 할 때에 아파서 한번씩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요.(이때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ㅠ) 12월부터 차곡차곡 연습해둔 것이 자산이 되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심층면접

저는 2차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끝나자마자 일단 스테디를 시작하고 필요한 책과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면접 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하길래 일단 **12월에는 공부, 1월부터 실전연습**으로 준비했습니다.

- **책:** 12월에 면접레시피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감이 오지 않아서 사이다면접 책(이론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서)을 구매해 1회독 하는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한달동안 사이다를 모두 읽고, 1월에는 면접레시피에 수록된 기출문제와 연습문제를 반복 연습했습니다. 면접 관련 서적은 다양하니 선생님들 기호에 맞는 책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만능틀:** 기출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질문 유형이 몇가지로 정리됩니다. 어떤 질문에도 수월하게 응용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능틀이라고 합니다. 만능틀은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교육에 대해 생각하던 것들을 차차 정리해가며 다듬어야 하니 **1차 끝나자마자 틈 날때마다 생각하고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활용해 감을 익히고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어 연습했기에 면접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기타:** **10분(인천)** 안에 구상형과 즉답형을 적절히 분배하여 대답하는 연습, **두괄식으로 명쾌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또 스스로는 모르는 **말투나 습관**들을 교정하기 위해 스터디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정에 신경쓰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녹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수업실연

- **구상 연습:** 20분(인천) 안에 도입-전개-정리로 이루어진 수업을 구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구상 시간**이 걸리는지, **조건**을 빼놓지 않고 잘 맞추는지 등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연에서 벅벅거리게 됩니다. 구상은 꼭 문제를 종이에 프린트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써 두어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시간 분배:** 실연 시간은 20분(인천)이며, 문제에 따라 도입-전개-정리 중 어떤 파트에 비중을 두고 실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도입-전개가 중점이라면 도입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더 중요한 전개파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습을 통해 내가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 **동기유발, 학생이름, 발문 등:** 동기유발은 각자의 매력을 보여주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잠깐이지만 매번 연습하다보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찌면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 창의적인 사례나 지역과 관련짓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실연의 꽃은 폭풍 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발문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름과 역할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가끔 엉뚱한 답변을 하는 학생들도 넣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하면서요! 또 순회지도를 하며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설정해서 활용했어요.
- **밝은 미소와 자연스러운 제스처:** 내가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실기시험(入 試 考 試)

	소묘	한국화
1차 발표 전(12월)	2타임씩 2일	2타임씩 2일
2차 발표 후(1월)	가능한 시간 모두	2타임씩 2일

(1) 소묘(3시간 완성)

저는 예고 출신이 아니었고 입시미술 경력이 그리 길지 않아서 소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감도 못 잡고 한 장 완성한 적도 없었어요. 이러다 소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12월 말부터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림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생기는 궁금증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부족한 그림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 동양화(3시간 완성)

저는 학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고, 대입에서도 인천 발상표현과 유사한 입시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른 전공과 비교했을 때 뒤쳐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인천이 소수 인원을 선발하기도 하고, 네 가지 전공을 각자 선택하는 방식이라 동양화를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VI. 마치며

사실 1년동안 매일, 매주, 매월 감정의 격변(제가 INFJ라서...^^)을 겪었습니다. 나 진짜 할 수 있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잠들다가도 오늘 공부한 내용이 아른거려서 다시 일어나 책을 보다가 잠들기도 했어요. SNS도 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기분이 들 때 답답하고 수험생활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공부를 내려놓고,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곳에 가서 마음을 환기시키고 재기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 문구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어요. 매일 보다보면 점점 그 고민들이 사라져갑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위로해줘야 해요.

합격을 얻기 위해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올인하면서 느낀 것은, 나를 너무 칭찬해주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단기 합격이 목표였기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수험생활을 보냈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관대하시길.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해주셨으면 해요. 오늘 내가 잘한 것 3가지 적기!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2차를 준비하면서는 그 누구도 대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합격,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안되면 되게하자는 각오!**